



관리도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빛나는 순간들

올 한 해, 청룡의 해를 맞아 시작된 소망과 다짐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속에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다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되새깁니다.
남은 한 달, 함께 나누었던 기쁨과 아쉬움을 간직하며,
또 다른 빛나는 내일을 준비해 봅니다.

2024
제332호

12

발행일 2024. 11. 25.(월)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T. 063)454-2092

-  유 튜 브 <https://www.youtube.com/user/gunsanbroadcast>
-  블 로 그 <http://blog.naver.com/gunsanpr>
-  페 이 스 북 <http://www.facebook.com/gunsancity>
-  인 스타 그 램 https://www.instagram.com/gunsan_official
-  카 카 오 채 널 http://pf.kakao.com/_uxaxdJT
-  홈 페 이 지 www.gunsan.go.kr



군산시 공식 SNS 링크 바로가기

고군산군도, 나만의 일몰을 담다.

해넘이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순간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담긴 시간입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 점차 사라지는 태양의 여운은 한 해의 끝을 알리며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선물 받습니다.



선유도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지만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어청도

어청도 등대는 1912년에 세워진 것으로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바다와 어우러진 빼어난 모습으로 우리나라 '아름다운 등대 16선'에 선정되었다. 어청도 등대와 주변의 해송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 처럼 아름답다.



말도

고군산군도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끝섬'이라고도 불린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말도는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린 신비의 천년송과 도끼섬바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습곡지형 등이 유명하다.



명도

방축도와 말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물의 맑고 깨끗하다 하여 명도라 부르게 되었다. 108m에 이르는 산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기묘한 바위들이 뒤엉켜 신비로운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방축도

고군산군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으로 기러기 모양과 같다고 하여 비안도라고 하였다. 섬에는 동백나무와 괴목 나무 숲이 장관을 이룬다.



관리도

꼬챙이를 닮은 작은 섬 관리도, 암석 해안에 작은 만과 곳이 산재해 선유도 이상으로 경치가 빼어나고 조망이 일품이다. 울창한 소나무가 뻗뻗하게 우거져 있고, 만물상바위 등 기암괴석의 다양한 모험들이 금강산을 옮겨 놓은 듯 신비롭다.

고군산군도 오시는 길

- 서해안 고속도로 안내** 군산·동군산C → 새만금방조제 → 고군산군도(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
- 열차 안내** 군산역 T. 063-850-2360~1 / 코레일(철도 고객센터) T. 1544-7788
- 고군산 시내버스 (99번)** 군산대 정문 : 매시간 10분 / T. 063-443-3077 (시내버스 연락처)

☎ 군산대 정문 환승 ▶ 비응항 환승장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여객선 안내
 군산연안여객터미널 T. 063-472-2711 / 471-8772 (매표소) / 1666-0940 (ARS)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장자도선착장 T. 063-464-4614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유람선
 군산유람선 T. 063-442-8845 (옥도면 선유북길 37)
 새만금유람선 T. 063-464-1919 (옥도면 선유도 3길 52-4)

고군산탐방지원센터 관광안내소 T. 063-465-5186 | 군산시간여행 관광안내소 T. 063-446-5114



사전준비로 겨울철 강설 제설대책 추진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2025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4시간 현장 중심 대비 체계 구축한다.

이번 제설 작업에는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 차량 52대(15톤 20대, 5톤 2대, 1톤 30대) 및 읍면지역 트랙터 부착 제설기 126대, 총 178대를 투입하여 18개 주요 도로의 상시 제설 및 읍면동 이면도로 제설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제설 추진을 위한 제설제 사전 확보로 제설제 수급난에 대비하고 시내 고지대 및 외곽 고갯길 모래함 정비, 제설 장비·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과 454-3567

연말까지 민간 공사장 50개소 노동안전지킴이와 함께 안전점검 실시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까지 민간 건설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촉한 '노동 안전지킴이'가 참여하며, 이들은 관내 중소 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2023년 11월에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안전총괄과 454-4772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필수예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시 최대 과태료 2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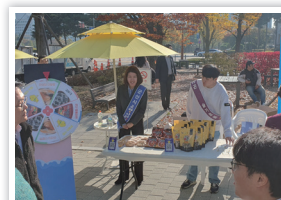
차량등록사업소는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3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료를 받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양도자는 이전 등록일 전까지, 양수자는 이전 등록일부터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폐차장에 입고된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원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륜차는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의 최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체납 할 경우 변호권이 영치될 수 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근절하고,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차량등록사업소 454-5765

군산 참홍어, 간장게장, 수제맥주 등 절찬리에 판매 성황

농수산 특산물 국회 홍보전, 19개 업체 현장 판매



군산시는 2024년 군산 농수산물 특산물 국회 홍보전을 11월 8일 국회에서 개최, 군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 참홍어, 김, 꽃게장, 박대 등 15개 수산물 품목과 수제 맥주, 짬뽕 라면 등 다양한 농수산물 19개 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군산 대표 수산물로 전국 생산량 43%를 차지하는 군산 참홍어를 포함해 양념게장, 곱창 김 등 5개 제품은 실시간 상거래(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판매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군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행사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기부 상담, 답례품 전시 및 시식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산식품정책과 454-2802

도심 속 찾아가는 농경문화 체험행사 성황

떡메치기, 짬뽕 꼬기 체험,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선 집중

군산시는 11월 5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도모를 위해 서울 은평구 롯데몰 은평점 옥상 공원에서 '도심 속 찾아가는 농경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와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은평구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6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도시 한복판에서 농촌의 전통 타작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전통 수확 도구인 홀태 체험을 비롯해, 떡메치기, 감자와 땅콩 캐기 등 흙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수확 체험을 즐겼다.

또한, 국화꽃 심기와 친환경 농산물 시식 및 판매행사 등도 마련되어, 도시 주민들이 농촌의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먹거리정책과 454-5973

외국인주민 수, 사상 첫 총인구 대비 5% 돌파

2023년 외국인 주민 수 13,374명으로 전년대비 1,996명 증가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군산시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13,3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기준 군산시 총인구 265,764명의 5.0%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996명(17.5% ↑) 증가한 것으로 2015년 3%에서 역대 처음으로 5%대에 진입한 수치이다. 이에 군산시는 증가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체류하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 우수 인력의 장기 비자 전환 시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여 정착 첫걸음에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 지원 정책을 펼쳐갈 계획이다.

인구대응담당관 454-2633

부르면 달려가요~!! 교통취약지역 '행복콜(call)버스' 확대운영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콜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회현면 1대, 임피·서수면 4대, 대야면 2대, 가력면 1대가 운행 중이며, 내년 2월에는 옥구·옥서 권역에 2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복콜버스는 기존 4개 권역 8대에서 5개 권역 10대로 확대된다.

행복콜버스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화를 통해 승객이 버스를 호출하면 원하는 정류장까지 왕복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8년 회현면을 시작으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교통행정과 454-3789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체험' 축제 개최

군산시민발전, 거북선만들기, 퀴즈대회, 핸드페인팅 등 행사진행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2024 신재생에너지 체험 페스타'가 옛 구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롭게 펼쳐졌다. 10개동의 체험 부스에서는 태양광 자가발전으로 거북선 만들기, 자가발전 자전거를 이용한 비눗방울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캐릭터 핸드페인팅, 재활용 양말목으로 만든 컵 받침 등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활동 등이 제공됐다. 또한 태양광 발전 원리와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각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교육 기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새만금에너지과 454-4423



제268회 임시회 군산시의회에서 대표발의한 건의안·성명서를 소개합니다.



건의안

한경봉 의원 대표 발의

행정사무 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한경봉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 기간 확충으로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지방의회의 충실한 법적 권한 행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송미숙 의원 대표 발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생존을 위해 ▲정부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 비율을 사업자 선택적 사항이 아닌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 ▲법안 개정 시 주민 참여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자율적으로 답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가 사업자의 배려와 양보가 아닌 허가 시 의무임을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 ▲주민 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현행 지침보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함께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최창호 의원 대표 발의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최창호 의원은 RE100의 빠른 실현과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상향 조정할 것,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에너지 인프라 성장을 위해 군산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 ▲국회는 시대와 역행하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초당적 태도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김경구 의원 대표 발의

벼 소출량 급감 조사 및 원인 규명을 통한 농업재해 인정 촉구

김경구 의원은 벼 소출량 급감에 대한 현장의 피해를 직시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벼 생산량 현장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농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농업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벼 이앙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실시와 더불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할 것, ▲이상기후로 인한 소출량 감소, 병해충 발생 등 재해 인정 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대폭 확대하고, 최종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

김영일 의원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



김영일 의원은 26만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된 사항을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결정과 항만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서은식 의원 대표 발의

새만금호 해수 유동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수변도시 용도변경에 대하여 ▲대통령은 헌법상 새만금 지역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환경부는 새만금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 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해수 유동을 중심으로 환경보전 대책을 지체 없이 수립하고 시행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만금 수변도시를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 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서울 강북구의회와 간담회 실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소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북구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 방문 및 문화·관광 운영 실태 견학을 군산, 태안 일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양 의회의 의정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의 현안과 의회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의회에서는 김우민 의장을 비롯하여 서동수 부의장·나중대 의회운영위원장·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윤세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강북구의회에서는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조운섭 부의장·최인준 운영위원장·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심재익 도시복지위원장 등 1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김명희 강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양 의회 간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교류 행사가 계속 진행되어 상생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동수 부의장은 “군산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군산은 근대 문화유산의 도시로

알려졌지만 특히 고군산군도는 세계 명품 관광지 못지않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니 꼭 가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중대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산은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며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기회가 된다면 강북구의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군산 구도심인 월명동·영화동 일대는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문화체험형 관광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매년 열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은 “근대역사박물관·은파유원지·선유도 등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해 군산의 매력을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 간 교류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군산시의회 간담회

2024년 강북구의회 국내 비교시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우리 동네 소식



경암동

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개관

경암동 행정복지센터가 11월 7일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었다.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와 군산거점농산물센터, 마을 카페가 2층과 3층에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수송동

'하하호호 붕어빵'으로 이웃사랑 실천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장 한중현)가 수송동 주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하하호호 붕어빵' 사업을 실시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따뜻한 붕어빵을 손수 구워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하하호호 나눔 붕어빵'은 동절기에 매달 두 차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 주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나눔 활동으로, 나눔과 희망의 수송동을 만들기 위한 특화사업이다.



나운3동

지역사회와 함께한 김장 김치 나눔의 마음

나운3동에서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온정이 버무려진 김장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나운3동 통장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김장 김치를 정성스럽게 버무렸다. 이들은 관내 취약계층과 경로당에 10kg짜리 김장김치 300상자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개정면

계곡가든, 연말 맞아 개정면 취약계층에 사랑의 빵 전달

계곡가든(대표 김철호)이 대한적십자사의 '사랑의 빵 나눔 행사' 봉사 후 만든 빵 200개를 개정면에 기탁했다. '사랑의 빵 나눔 행사'는 빵 나눔터 시설을 이용해 참가자가 직접 빵을 만들고, 만들어진 빵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군산 계곡가든이 연말을 앞두고 개정면 취약계층에게 온정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군산 계곡가든의 정성이 가득 담긴 빵을 전달받은 개정면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전달했다.



삼학동

겨울을 따뜻하게, 해성신협의 사랑의 이불 나눔

군산 해성신협(구 오룡신협)은 겨울 이불 20채(80만 원 상당)를 삼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삼학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불을 한파 취약 가구에 전달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 해성신협은 매년 사회공헌 활동인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 이불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신풍동

안전한 家(가스)레인지 교체 사업 순항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태순희)는 관내 70세 이상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안전한 家(가스)레인지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오래된 가스레인지로 인한 화재와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임피면

주민의 손길로 완성된 자치문화의 향연

임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와 화합의 시간은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서예 전시로 시작되었고 참여한 주민들은 각기 다른 서체와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개성을 뽐냈다. 이어진 요가공연에서는 주민들이 건강과 삶을 위한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라인댄스와 난타 공연에서는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하나 되어 유대감을 느꼈다.



월명동

100세까지 지키는 건강, 영양제 선물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기수, 공공위원장 김영호)는 관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40가구에 영양제를 전달했다. 지원대상자는 매월 2차례 진행되는 '월명건강데이'를 통해 기초검진과 건강 상담을 받은 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며, 영양제 복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서수면

겨울철 한파 대비, 경로당 안전 점검

서수면에서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위해 경로당 35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안전 점검과 어르신들과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경로당의 보일러와 난방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점검하고, 시설 전반을 살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한파 대비 행동 요령과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겨울철 안전을 챙겼다.

화끈한 군산 짬뽕 어땀어요?

리포터 고덕자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 군산에서 만난 화끈한 짬뽕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분주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미식의 고장 군산, 짬뽕 특화거리(장미동 동령길) 일대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전 세계의 짬뽕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군산 짬뽕 페스티벌'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군산 짬뽕 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짬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군산 짬뽕을 먹거리 관광 문화로 정착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리는데, 이번 짬뽕 페스티벌에서도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맛과 즐거움을 모두 선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짬뽕 특화 거리 내 입점한 9개소와 군산의 4개의 짬뽕집이 축제의 주인공인 짬뽕을 맛볼 수 있는 맛집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으며, 세계 이색 짬뽕으로 유명한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4개국이 참가해 본토 국물 요리를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군산 짬뽕 페스티벌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미식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인근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볼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겉기 좋은 군산의 가을

리포터 이유정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나뭇잎 빛깔이 설렘을 주는 요즘이다. 현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이지만 군산에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을 느낄 곳이 많다.

청암산, 이영춘 가옥, 임피역, 임피향교, 금강변과 금강습지생태공원까지 가을을 만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월명산과 은파호수공원은 빼놓을 수 없는 군산만의 자랑거리이다.

봄에 봤던 화사한 벚꽃도 없고, 뜨거웠던 여름을 달래주던 청량한 초록 잎이 사라진 자리에는 묵묵히 한해를 견뎌내고 있는 가을이 녹아있다. 높은 가을하늘과 함께 잔잔하게 물결치는 호수의 조화는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해 준다. 이번 주말에는 군산 걸어보기로 하면 어떨까?

내 고장 군산에서 한 해 동안의 나를 떠올려 보는 것을 추천한다.

청암산 구슬땀 전국등산 축제,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어린이 리포터 채연우



지난 11월 2일 군산의 청암산에서 제13회 청암산 구슬땀 전국등산축제가 열렸어요. 이 축제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청암산의 자연을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행사프로그램에서는VR체험, 떡메치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또한 식전 공연, 개회식, 기념행사, 걷기행사, 축하공연과 경품 추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즐거운 추억이 되었고 내년에도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도 꼭 참여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멋진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기업은 높이고, 활기는 살리고 "새만금 활기업" 축제

리포터 오정희

새만금 어린이랜드와 GSCO에서 제1회 '새만금 활기업'축제가 10월 24일~26일 까지 열렸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홍보부스를 열어 신나는 게임과 퀴즈를 풀며 뜨거운 홍보의 열기 높이고, 넓은 잔디 위 테마 공연존에서는 거리공연과 미니올림픽, 근로자 노래자랑과 개막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지고 지역문화 체험 공간에서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이 멀지 않은 듯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직접 조립한 '거북선'과 군산대학교에서 조립한 '태양열 자동차'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답게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과 O,X 퀴즈, 보물찾기, 마술 공연 그리고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 그리기대회'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축제에 참여 한 모든 분이 무척이나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에서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기념 특별 문화행사 함께해요~

어린이 리포터 김한비



군산시립도서관에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얼마 전 가족들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번 문화 행사에서는 도서관 일반자료실(2층)에 한강 작가님의 주요저서 작품과 서평을 전시한 북 큐레이션과 작가 이름 2행시 짓기를 11월 말까지 운영하고 내 마음을 울리는 작품 속 한 문장 필사 코너는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문학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산대 류보선 교수님의 해설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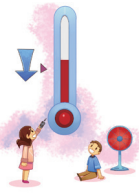
저는 어려서 아직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커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노벨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읽다니 너무 꿈만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겨울철 난방취약계층 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024. 11. ~ 2025. 2. (4개월)
-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 월동 난방(연료)비 : 연탄, 등유 및 경유 지원
 - 난방기기 및 용품 : 보일러(연탄·기름) 설치 및 수리, 기타 난방기기 지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 단열 및 창호공사 지원



복지정책과 454-3073

가족이 함께하는 탐조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024. 11. 30.(토) ~ 12. 28.(토) / 매주 토요일
- 접수시간 : 14:00~14:30(어도), 16:30~18:30(가창오리 군무)
- 탐조장소 : 어도 및 조류관찰소 일원
- 신청대상 : 조류 관찰을 희망하는 어린이 및 부모님
- 접수인원 : 회당 15명(1인/1등록) · 신청방법 : 금강미래체험관 홈페이지 접수

환경정책과 454-5682

김장철 채소 쓰레기 특별 처리기간 안내

- 운영기간 : 2024. 12. 31.(화)까지
- 처리대상 : 김장철 채소쓰레기(배추 잔재물, 무청 등)
- 배출방법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유의사항
 -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
 - 특별 처리기간 이후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배출



자원순환과 454-3450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여성중학교 2025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기간 : 2025. 2. 3(월)까지
- 모집인원 : 60명(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
- 과 정 : 중·고등학교 3년 과정(주간)
- 지원자격 : 전북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19세이상 성인여성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면접(2025. 2. 6.~7.)
- 접수장소 : 방문접수(본교 교학관리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290-6890

내 손안의 화학안전지도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를 위해
군산시 관내 화학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실시간 정보알림을 목적으로
대피경로, 주민행동요령전파 등
시민이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서비스 채널
· Web
· Android
· iOS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QR 코드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http://gunsanchemmap.go.kr>

환경정책과 454-3403

매주 목요일 투명페트병 집중수거 안내

- 사업대상 : 군산시 전지역(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 추진근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 '21.12.25. :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전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투명페트병! 내용물 비우고, 라벨은 제거하고, 찌그러트리고, 투명비닐에 담은 후 매주 수요일 오후 배출 ▶ 목요일날 수거



자원순환과 454-3460



2025년 군산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4. 12. 2.(월) ~ 12. 6.(금) [5일간]
- 1) 티켓링크 순번예약
 - 공 연 : 2024. 11. 25.(월) 10:00 부터 ~ 12. 4.(수) 17:00 마감
 - 전 시 : 2024. 11. 28.(목) 10:00 부터 ~ 12. 6.(금) 17:00 마감
- 2) 정기대관 방문접수
 - 공 연 : 2024. 12. 2.(월) ~ 12. 4.(수) 09:00 ~ 18:00
 - 전 시 : 2024. 12. 5.(목) ~ 12. 6.(금) 09:00 ~ 18:00
- 제출서류
 - 공연장 : 사용허가신청서, 부대시설사용계획서, 공연계획서, 대관자준수사항동의서 등
 - 전시실 : 사용허가신청서, 전시계획서, 대관자준수사항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 접수방법 : 티켓링크 순번예약시스템 예약 후 방문 접수 (예술의전당 지하1층 리허설룸)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6

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후원금



모두 함께
세상을 바꾸는 노력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연말정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개인별 소득 및 과세연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0)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각 500만원까지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각 200만원까지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각 100만원까지
-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바로가기
www.give.go.kr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466-8471

예술의전당 공연



윈터페스타 (소란 & 아도이)

- 일 시 : 2024. 12.14.(토) 17:00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연령 : 초등생 이상 관람가
- 티켓금액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12/6까지 예매 시 20% 할인)
- 예 매 :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56

군산시립예술단 공연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59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 일 시 : 2024. 12. 5.(목) 19:30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출 연 : 군산시립교향악단
- 특별출연 :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군산시민연주자 57명
- 입 장 료 : 무료
- 예 매 :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시립예술단 454-5528



피싱범죄 예방 안내문

군산경찰서는 지금 피싱범죄와 전쟁 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경찰서장입니다. 먼저, 항상 평안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군산경찰서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범죄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다액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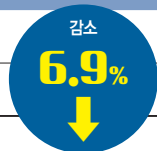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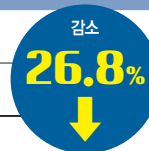
군산시 피싱범죄 발생 및 피해액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만원)
2023	171	33억 8,000
2024 (1월~8월)	98	25억 6,000



피싱범죄 총력대응 이후 발생 및 피해액

구분	월평균 발생(건)	월평균 피해액(백만원)
2024 (1~8월)	12.3	320
2024 (9~10월)	9	298



군산시 최근 피해 사례

-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3차례 걸쳐 2억 1천만원(현금·수표) 편취
- 금융기관(은행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며 속여 6천만원 갈취
- 피해자에게 '모바일 청첩장'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법링크를 전송, 악성앱이 자동 설치 되게하여 개인 금융정보 탈취 후 4,500만원 계좌이체하여 편취



피해 예방법 예방 수칙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 송금 상대방은 반드시 확인!
- ✓ 출처불명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 모르는 전화를 받은 후 계좌이체·현금 전달 무조건 금지
- ✓ 핸드폰에 신분증 사진·계좌번호·비밀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피해시 대응 방법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기

범죄자에게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경찰청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
※ 이후 경찰에 신고 및 피해사실확인서·신분증·구제신청서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은행에 제출해야 지급정지 유지

경찰에 신고하기

- '112' 전화 신고 또는 인근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PC)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내 신고하기 (ECRM.POLICE.GO.KR)
→ 범죄유형 선택 → 본인인증 → 신고내용 작성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수상한 전화·문자 대응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주세요!